시론

진정한 '아보하'

김재구 목사
창원 남산교회

며칠 전 오후에 교회 어린이집에 공기 청정기 교체가 있어서 담당 회사 코디 되는 여자 분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본인이 아니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책임자가 담임 목회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서류정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의 틈이 생겨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시냐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방학 때 여름성경학교를 간간이 가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친김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살아가며 인생이 이 세상의 삶 뿐이면 허무함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 혹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자신은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며, 지금 현재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현재만 바라보기도 버겁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에서 부딪쳐 오는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하며 사람들 사이에 회자 되는 유행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욜로(YOLO)', 즉 "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의 약자로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한 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유행이었다면, 그 뒤를 이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2020년대 초까지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5년은 행복도 사치라 여겨 '아보하,' 즉 '아주 보통의 하루'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세요 유행이 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업무 중인 분이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며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당차게 '욜로'를 외쳤는데 결국은 그저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리자는 '소확행'으로 꺾이고, 이제는 행복도 바라지 않고 비록 평범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쪽으로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기치 못한 비행기 추락, 모든 것을 앗아 가는 산불, 공사현장에서의 붕괴, 물난리, 소비 물가상승, 탄핵으로 인한 때 이른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현재 삶 속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한 인생의 소소한 저항이며 생존을 위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행어를 바꾸어 가며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보지만 성취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코 인간이 삶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일 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행어는 '아보하'에서 멈추지 않고 분명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온전히 맡길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을 유행어만 바꾸다가 허무함으로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늘 동일한 것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우리의 현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나아가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사랑의 전능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전 1:2)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마 6:31-34). 그렇게 되면 '아보하'는 십자가까지 기꺼이 받으신 '아름다운 보화이신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현실의 벽을 넘어 영원을 꿈꾸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칼럼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윤형석 목사
구로중앙교회

가끔은 그런 날이 있다.

몸은 바쁜데 마음은 허전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삶의 의미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마음속 한 자리는 비어 있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풍요는 채워졌지만, 정작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부족하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그릇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평안이든, 의미든...

성경은 이 공허함의 원인을 '하나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전도자는 말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되도다."(전 1:2)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탄식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공백을 마주한 고백이다.

다행히 하나님은 이 빈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다. 목자가 된 하나님은 양 된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한 것을 친히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다르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영혼 깊은 곳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 여인은 다섯 번 결혼했고, 지금도 관계의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의 외적 현실보다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수를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채우신다.

우리의 상처, 실패, 결핍, 외로움…

그 모든 빈자리를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한다.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 세상 걱정으로 빼곡한 생각, 스스로를 붙들고자 하는 집착이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공간이 없다. 마치 꽉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어떤 것을 허물기도 하신다.

그것이 무너짐처럼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채우기 위한 준비인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 평안으로, 내 사랑으로, 내 생명으로..."

비어 있는 마음,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社說

'쉼'이 생기(生氣)입니다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의 종말이 임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나라마다 다투듯이 자원을 개발하고, 공장을 운영함으로 이산화탄소의 급증과 각종 오염으로 인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모두가 영·육간에 피곤에 지쳐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로 과로하여 피곤과 곤비함에 지쳐서 산과 들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휴식을 잘 활용하면 가치 있는 창조적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잘못하면 삶은 더욱 곤비하고, 고달프고, 마침내 파괴적인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창조적이고 기력이 왕성한 삶을 위하여 진정한 '쉼'이 있어야 한다.

첫째, 삶은 '쉼'을 통하여 더욱 활력을 얻게 된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쉼표(,)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은 쉼을 누리는 삶이다. 쉼은 안식, 휴식, 회복, 평안 등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존재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쉼은 생명의 보약과 같다. 그러나 게으르고 날마다 노는 사람에게 쉼은 또 다른 게으름에 불과하다. 쉼은 재창조의 기회이다. 쉼이 없는 삶이 고통이요, 지옥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쉼'을 통하여 생기를 충전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있다.

둘째, '쉼'이라는 말과 관계된 영어 용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첫째, Rest라는 말로서 '안정, 안락, 휴식'이라는 뜻이 있다. 둘째, Relax라는 말로서 '늦추다. 긴장을 풀다. 편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셋째, Refresh라는 말은 '쉬게 하다, 새롭게 하다, 기운이 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등의 의미다. 넷째, Restoration이라는 말로서 '원상복구, 수복, 원기회복'이라는 뜻이다. 다섯째, Recreation이란 말은 '휴식, 기분전환,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영적인 '쉼'도 필요하다. 신앙인의 삶도 지치고 곤고하며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 환경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마음에 먹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의심이 생길 때,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으로 비관이 생길 때, 죄의식으로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 짓누름을 당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을 때 등, Knockdown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Burnout 되기도 한다. 이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1:31).

인생의 '쉼'은 하늘의 생기(生氣)를 통하여 얻게 된다. '쉼'은 육체에는 활기(活氣)를, 정신에는 정기(精氣)를, 영혼에는 영기(靈氣)를, 인격에는 향기(香氣)가 흘러 나와서 살 맛나게 한다.

무더위가 한창인 계절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화기(和氣)가 넘치는 삶을 누려봅시다(마 11:26).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홍사진 **사장** 김종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 (주식회사 성결신문사)